

1 월 18 일, 대관식의 날 - 책임의 왕관을 물려준 날

오늘오늘 세계의 빛은 그의 빛의 보석들을 만나러 왔다. 오래 잊었다가 이제 찾은 자녀들은 아버지의 빛들이다. 어떤 이가 시력이 없으면 그에게 세계가 없는 것처럼 너희 영적인 빛들이 세계에 없으면 세계에 빛이 없고 오직 어두움만이 있다. 따라서 너희들은 모두 밥다다의 눈의 빛들이다. 즉, 너희들은 세계의 빛들이다. 오늘 이 특별한 기억의 날에, 밥다다는 서틀리전에서 암릿벨라 때부터 너희 모든 자녀들이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각 자녀의 노래는 다음 사람의 노래보다 더 사랑스러웠다. 바바는 또한 많은 가슴과 가슴의 대화가 오고가는 것을 들었다. 자녀들의 사랑의 진주의 화환이 아버지의 목 둘레에 둘려지고 있었다. 전체 싸이클 중에서 오직 지금만이 밥다다에게 그런 진주의 화환이 둘려진다. 다른 어떤 때에도 바바가 이런 더없이 귀중한 사랑의 진주의 화환을 두르지 못한다. 이 진주 하나 하나에 무엇이 들어 있는가? 각 구슬에는 "나의 바바!"와, 바바!"하는 말들이 들어 있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화환이 있었겠는가? 그리고 밥다다가 얼마나 이 화환들로 아름답게 장식되었겠는가? 외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징표는 그에게 화환을 씌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너희들이 그분에게 외적인 장식을 해 주었지만, 밥다다의 장식은 암릿 벨라에 서틀리전에서 시작되었다. 화환이 하나씩 줄을 이어 밥다다의 아름다운 장식이 되었다. 너희들 모두 그 장면을 볼 수 있다, 그렇지 않으냐?

오늘은 모든 자녀들의 대관식을 하는 특별한 날이다. 오늘은 아디 데브인 아버지 브라마가 모든 육체적인 책임을 포기한 날이다. 그는 육체적인 봉사의 왕관을 눈의 드리쉬티와 함께 포기했고 그것을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의 손에 넘겼다. 따라서 오늘은 아버지 브라마가 자녀들에게 육체적인 봉사의 책임을 넘겨주는 대관식 날이다. (다디지에게): 너는 이 날을 기억하느냐? 오늘은 아버지 브라마가 너희 자녀들에게 "너희는 아버지와 대등해질지어다!"의 축복을 준 날이다. 너희는 아버지 브라마의 마지막 생각의 말과 눈의 언어를 들었느냐?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바의 눈의 신호를 통한 말은 "아버지의 끊임없는 협조를 통해 자녀들의 수는 끊임없이 늘어날 것이다"였다. 너희는 이 마지막 말을, 축복으로 가득 찬 이 말들을 실질적인 형태로 볼 수 있다. 너희들 모두가 아버지 브라마의 마지막 축복의 육체적인 형태다. 너희들 모두 그 축복의 씨앗에서 나온 다양한 열매들이다. 오늘 쉬바는 아버지 브라마에게 이 축복의 씨앗에서 나온 크고 아름다운 나무를 보여 주고 있었다. 과학자들은 그들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양한 과일이 열리는 나무를 만들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나, 아버지 브라마의 축복의 나무, 쉬운 요가로 부양이 되는 그 나무는 완전히 고유하며 가슴을 기쁘게 한다. 이 한 나무에는 다양한 열매들이 있다. 별도의 나무는 없다. 오직 여러 가지의 열매가 열리는 한 나무뿐이다. 너희들은 그런 나무를 볼 수 있느냐? 너희 각자 이 나무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느냐? 따라서 그런 독특한 나무가 서틀리전에 나오게 만들었다. 그런 나무는 황금시대에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 너희들은 과학자들이 지금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의 일부 결실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은 단 하나의 과일에서 둘이나 네 가지 과일의 주스를 맛볼 것이다. 그들은 노력을 하고 너희는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너희가 지금 그것을 먹게 되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오늘이 무슨 날인지를 들었느냐? 아버지 브라마는 처음에 그의 물질적인 부를 자녀들에게 내어 물려주었듯이 또한 그의 영적인 재산도 자녀들에게 물려주었다. 따라서 오늘은 모든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날이다. 이 영적인 재산의 유언을 바탕으로, 너희의 발전이 그의 의지력의 실질적인 결실로서 드러난다. 그는 너희 자녀들을 도구로 만들었고 그의 의지력을 너희에게 물려주었다. 오늘은 아버지와 대등하게 되는 축복을 받은 특별한 날이다. 오늘은 사랑과 힘의 결합된 축복을 받는 날이다. 너희는 극도의 사랑과 극도의 힘, 이 둘의 실질적인 경험을 했다, 그렇지 않으냐? (다디에게): 너는 너의 경험을 기억하느냐? 너는 대관식을 가졌다, 그렇지 않으냐? 앗차. 너는 이제 오늘의 중요성을 안다. 앗차.

아버지의 축복을 통해서 끊임없이 확장을 가져오는 이들에게, 한 아버지 외에 다른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다는 의식의 핵심인 이들에게, 아버지 브라마와 같이 끊임없이 천사가 되라는 축복을 받은 이들에게, 그런 대등하고 가까운 자녀들에게, 힘의 날에, 밥다다의 사랑과 기억과 나마스테를 보낸다.

밥다다 다디와 디디지를 만나심:

너희들은 사카르 바바로부터 축복의 모든 권리를 받은 특별한 영혼들이다, 그렇지 않으냐? 사카르 바바가 너희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었느냐? 처음에 브라마 바바가 "타트 트瓮(당신도 마찬가지)"라는 축복을 받았듯이, 마찬가지로 브라마 바바도 너희 자녀들에게 "타트 트瓮"이라는 특별한 축복을 주었다. 따라서 너희들은 "타트 트瓮" 축복의 권리를 가진 특별한 상속자들이다. 이 축복을 끊임없이 너희의 의식에 간직한다는 것은 힘있는 영혼이 됨을 의미한다. 너희들이 모든 행동에 실질적으로 아버지를 경험하였듯이, 마찬가지로, 이 축복을 의식하고 있음으로써 아버지 브라마가 모든 행동에서 드러날 것이다. 따라서 너희들 소수의 본래 보석들은 아버지 브라마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다. 영혼들은 너희 특별한 영혼들의 얼굴에서 브라마의 형태를 경험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이를 경험한다. 그들은 너희를 브라마 쿠마리스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아버지 브라마와 대등해 짐을 경험하게 해주어라. 너희를 통해 그들이 아버지 브라마를 경험하도록 하여라. 너희 영혼들은 그런 봉사를 위한 도구가 되는 축복을 받았다. 모두가 무어라 말하느냐? "우리는 바바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바바를 얻었습니다!" 따라서 누가 그들에게 이 경험을 주었으며 누가 그들에게 아버지를 드러내었느냐? 이를 위한 왕관을 받은 너희 특별한 영혼들이다. 이제 다시 한 번 그들이 아버지 브라마와 샥티들의 비전을 보기 시작할 것이다. 브라마와 쉬바의 자녀들은 샥티 안에 합쳐져 있다. 그들은 쉬브 샥티와 아버지 브라마의 비전을 볼 것이다. 그들은 브라마 쿠마리스를 보지 않고 아버지 브라마를 볼 것이다. 그들은 평범한 형태를 보지 않고 쉬브 샥티의 형태를 볼 것이다. 초창기에 사카르 형태의 경이롭고 신성한 활동이 보여진 것과 마찬가지로, 마지막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오직 추가되는 것은 그들이 쉬브 샥티 형태의 비전도 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가진 아버지는 브라마이다, 그렇지 않으냐? 육신의 형태로 여기에 온 자녀들은 틀림없이 아버지를 보고 경험한다. 너희는 또한 그들이 아버지 브라마로부터 받은 협조에 관한 소식을 듣는다. 그는 육신의 모든 콜레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대단히 강도 높은 협조를 할 수 있다. 이것은 드라마에 따라 영원히 성장이 일어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넓은 지역에 빛을 퍼뜨리려 할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너희는 빛을 더 높이 올린다. 태양도 그렇게 높이 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빛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육신의 세계에 강력한 빛살(사카시)을 보내려면, 아버지 브라마가 고양된 곳의 거주자가 되어야 했다. 그는 이제 일 초 안에 어떤 과업이라도 수행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도록 남을 고무할 수 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과업을 말과 편지로 수행할 수 있었겠는가? 이런 방식으로 그는 집중적으로 자녀들과 협력하여 그의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가장 빠른 봉사 방법은 생각의 힘이다. 그러므로 아버지 브라마는 고귀한 생각의 방법으로 확장을 가져오는데 끊임없이 협력하고 있다. 따라서 확장도 또한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방법이 빠르고, 따라서 확장도 빠르다. 너희들은 정원을 보며 행복하다, 그렇지 않으냐? 앗차.

밥다다가 사카르 바바의 세속 가족을 만나심(나라얀 다다와 그의 부인):

모든 것이 팬찮은가? 너희는 언제 점프를 할 것이냐? 이 모든 확장을 보며 너희는 쉬운 방법을 경험하지 못 하느냐? 너희는 아직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그것은 단지 생각의 문제다, 그렇지 않으냐? 너희는 다른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느냐? 너희가 생각만 하면 일은 이루어진다. 이 모든 사람들(이중 외국인들)은 그렇게 면 데로부터 여기에 왔다. 그들이 무엇을 바탕으로 이곳에 왔느냐? 그들은 이것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며 이것이 그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을 가졌고, 그래서 여기에 온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결의에 찬 생각으로 면에서도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되었다. 너는 어린 시절부터 권리를 가졌다. 너는 어린 시절을 기억하느냐? 따라서 너는 무엇이 되겠느냐? 너는 단순히 구경만 할 것이냐 아니면 날아가는 단계로 들어가 아버지와 대등한 천사가 되겠느냐? 너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다, 그렇지 않으냐? 얼마나 더 오래 동안 그저 구경만 하겠느냐? 얼마나 더 오래 동안 너는 이에 관해 생각해야겠느냐? 얼마 동안 생각하겠느냐? 밥다다는 자녀들이 사랑의 날개를 가지고 날게 만들고 싶다. 따라서 날개 위에 앉으려면 너희가 무엇을 해야겠느냐? 너희는 더블라이트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냐? 너희는 모든 것을 하는 동안 더블라이트가 될 수 있다. 그것은 그저 상상의 게임이다. 그것은 일 초의 게임이다. 너희는 이 일 초의 게임을 모르느냐? 아버지가 무엇을 했느냐? 그는 일 초 만에 게임을 했다, 그렇지 않으냐? 너희 둘이 서로 협조하면 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단 하나의 바퀴로는 나아가지 못 한다. 두 바퀴가 필요하다. 그래도, 최소한 너희들은 밥다다의 집에 왔다. 밥다다는 끊임없이 자녀들을 고귀한 형태로 본다. 고귀한 아버지는 자녀들이 고귀해지는 것

을 보기를 원한다. 이것이 법이다, 그렇지 않으냐? 이제 너희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가는 너희 자녀들의 손에 달렸다. 이에 관해서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라. 그러나 그것은 일 초의 문제다. 너희들은 단 일 초에 이 거래를 해야 한다. 앗챠.

아부 회의를 위한 특별 계획(1982/01/12):

영혼들을 단지 VIP로서 만이 아니라 사랑을 가진 영혼들로 만들어서 아부 회의에 데려와라. 그들을 사랑을 가진 영혼들로 만들어 이곳으로 데려오면 그들의 관계가 맺어질 것이다. (어떻게 그들을 사랑스러운 영혼들로 만듭니까?) 너희가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아버지를 찬양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욱 더 아버지에게 계속 끌릴 것이다. 계속해서 "바바, 바바!"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바바의 위대함을 설명하면 그들이 계속해서 사랑을 가진 영혼들이 될 것이다. 그들이 누군가에게서 위대함을 경험할 때에는 자동적으로 그 사람에게 고개를 숙인다. 신봉자들은 실존하지 않는 이미지들에 대해 그만큼 믿음과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고개를 숙인다. 실존하지 않는 것과 살아 있는 것들 사이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 이미지들에게 고개를 숙인다. 여기에서도 대통령이나 수상이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그들의 위대함 앞에 고개를 숙인다. 너희가 아버지의 위대함을 계속 설명할 때 그들은 계속 고개를 숙일 것이다. 너희들 모두 영리해졌다, 그렇지 않으냐? 너희들은 과학과 침묵의 지식, 그리고 이 나라와 외국 땅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경험 또한 그 자체로 하나의 힘이다. 가장 위대한 힘은 경험의 힘이다. 너희가 자신의 경험을 설명할 때 모든 사람이 행복해진다. 자신의 경험을 설명하는 사람들조차도 힘이 넘치게 된다! 이것은 그 자체로 큰 무기다. 다른 곳에서는 단지 말만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들 중 어느 누구도 경험이라는 권위의 힘이 없다. 여기에서는 특기가 경험이다.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단지 말만 하는 사람들보다 더 큰 권위가 있다. 점차적으로 과학자들과 경전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이 그저 피상적이어서 토대가 없다고 느끼기 시작할 것이며, 너희들은 경험을 너희의 토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그들은 비록 달에 갈 수 있었지만 자기 자신을 경험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달에 도달한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들은 이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지만 오직 마지막에 가서야 이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과학을 바탕으로 하는 사람들, 즉 무기를 가진 사람들과 경전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깨달을 것이다. 앗챠. 너희들 모두 행복하다, 그렇지 않으냐? 이것은 어렵지 않다, 그렇지 않으냐? 너희들은 쉬운 요기이냐? 너희들은 쉬운 봉사자들이냐?

런던에서 온 자매들이 디디지와 다디지에게 해외로 그들을 방문해 달라는 초청을 했다.

1983년 초에 너희들은 모든 사람들을 이곳으로 데려와야 했고, 그들 모두 이곳에 왔으므로 이곳에서 일어나는 봉사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특별한 필요가 있다. 너희들이 해외에서 유엔에 특별초청을 받으면, 가야만 한다. 그러나 너희 자신의 회의를 위해서 그곳을 방문할 필요가 그리 크지는 않다. 왜냐하면 그 영혼들은 이곳으로 와야만 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지금은 그것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 외국을 방문한다는 것은 한 순간 이곳에 있다가 다음 순간에는 저곳에 가 있는 것과 같다. 그런 행사가 열리면 그들(디디지와 다디지)이 그곳에 갈 것이다.

너희가 유엔에서 맺고 있는 접촉관계를 늘리는 것은 실질적인 봉사다. 가능한 한 그들과 더욱 더 가까이 접촉을 가져서 셀리(유엔 사무실의 샐리 스윙-셀리)가 왔을 때처럼 그들이 편안한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하여라; 왜냐하면 그녀는 사랑이 넘치는 접촉에 끌렸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냐? 그녀는 사랑의 부양을 받았다. 높은 관리들은 어디에서라도 그들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머물러야 한다. 그들은 사랑의 부양을 받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관계의 다정함이 있다. 이것이 이곳의 특별함이다. 누구라도 접촉이 되거나 관계를 맺는 사람은 가족의 느낌을 가져야 한다. 그들은 자기가 잃었던 아주 가까운 영혼들을 찾은 느낌을 경험해야 한다. 그들과 접촉을 늘리는 봉사는 훌륭하다. 그들이 계속 더 가까이 올수록 너희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밥다다가 엉클 스티브 나레인(가이아나의 대통령)의 가족에게 사랑과 기억을 보내심:

그에게 가슴으로부터 많은 기억을 보내라. 그는 자신의 몸과 마음과 부로 완전히 협조하는 자녀다. 그는 지각 속에 사랑을 가지고 완전한 사랑의 믿음을 갖는데 일등이다. 예산 때문에 그는 이곳에 오

지 못했다. 그러나 판다바 정부의 예산 면에서 볼 때 그는 이미 자신의 지각으로 이곳에 왔다. 그는 매우 겸손한 자녀다. 드라마에 따라서 전체 가족이 봉사적이다. 그는 대단한 용기를 가졌다. 온 가족이 대단한 사랑을 가졌다. 그들은 맹목적인 믿음이 없고 지식을 바탕으로 사랑을 지녔다. 그들의 접촉을 통해서 우리가 미국에 도달했다. 그는 무한한 봉사를 위한 특별한 영혼들의 도구가 되었다. 이것이 한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는 큰 마이크다. 그를 보면 그곳의 정부는 매우 감명을 받았다. 지식과 요가의 아주 좋은 영향이 있다. 그들은 매우 훌륭한 봉사자들이다.

축 복: 한정된 욕구들을 일체 버림으로써 선량해져서 모든 성취로 가득해져라.

한정적인 욕망을 가진 자들은 결코 그 욕망들을 이룰 수 없는 반면, 선량해지는 자들은 순수한 소망이 모두 다 충족된다. 공여자의 자녀들은 그 무엇도 달라고 할 필요가 없다. 그것을 청함으로써 너희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너희가 욕구를 가진다는 뜻이다. 무한한 봉사를 위한 너희의 생각에 한정적인 욕구가 전혀 없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한정된 욕망을 가지지 말고 선량해지는 방법을 택해라, 그러면 너희가 모든 성취로 가득해질 것이다.

슬로건: 기억과 이타적인 봉사를 통해 마야의 정복자가 되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다.

타파샤의 형상이 되어라:

태양광선이 어디에나 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타파샤의 형상이 되어, 전능한 권위자 마스터의 단계에 안정해 머물러 있으면서 모든 힘과 특별함의 광선들을 곳곳으로 퍼뜨리는 경험을 해라. “나는 전능한 권위자 마스터, 장애의 파괴자인 영혼이다.” 이 자아존중의 의식의 자리에 안정해 있어라.

*** 음 산티 O M S H A N T I ***